

# 안정감 보여주는 KIA 윤영철...이의리 뒤 이을까

신인 윤영철, 올해 10경기서 3승 3패 ERA 3.08

위기 상황멘탈까지 갖춰...강력한 신인왕 후보로

KIA 타이거즈 '슈퍼 루키' 윤영철이 등판을 거듭할수록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이며 신인왕의 강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총암고를 졸업하고 2023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전체 2순위 지명을 받아 KIA 유니폼을 입은 윤영철은 지명 당시부터 '즉시 전력감'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1군 스프링캠프에 합류해 시즌을 준비했다.

스프링캠프와 시범경기에서 코치진의 눈독을 찍는 데 성공한 윤영철은 선발진 한 자리를 꿰찼다.

데뷔 시즌 윤영철은 10경기에 등판해 52% 이닝을 던지며 3승 3패 평균자책점 3.08로 준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성장하는 모습이다. 개막 이후 두 차례 등판에서 5이닝을 채우지 못했던 윤영철은 4월 27일 NC 다이노스전에서 5이닝 무실점한 것을 시작으로 꾸준히 5이닝 이상을 소화하고 있다.

5월 3일 롯데 자이언츠전에서 5이닝 5피안타 3탈삼진 1볼넷 1실점으로 호투해 데뷔 첫 승리를 신고했고, 5월 17일 삼성 라이온즈전에서는 5.1이닝 1실점(비자책점)하며 처음으로 5이닝을 넘겼다.

윤영철은 5월 24일 한화 이글스전에서 승리

투수가 되지 못했으나 6이닝 3피안타(1홈런) 3탈삼진 3볼넷 1실점으로 호투, 데뷔 첫 퀄리티스 타트(선발 6이닝 이상 3자책점 이하)를 써냈다.

6월에 나선 2경기에서 모두 패전 투수가 됐지만, 연달아 퀄리티스타트를 찍었다.

특히 6월 6일 SSG 랜더스전에서는 개인 한 경기 최다인 7이닝을 소화했다. 안타 6개, 볼넷 1개를 내주고 2실점하며 패투를 펼쳤다.

윤영철은 6월 11일 두산 베어스전에서도 6이닝 동안 7개의 안타를 맞고도 실점을 '3'으로 최소화하며 제 몫을 해냈다.

윤영철의 속구 구속은 시속 140km 초반대에 불과하지만 날카로운 제구와 신인답지 않은 노련한 경기 운영 능력을 앞세워 연일 안정감 있는 투구를 선보이고 있다.

디셉션(투구 시 공을 숨기는 동작)이 워낙 좋고, 위기 상황에서도 좀처럼 흔들리지 않는 멘탈까지 갖췄다는 평가다.

김종국 KIA 감독은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시즌 내내 "윤영철은 5이닝 3실점 정도만 해줘도 좋다"고 말해왔는데, 기대 이상의 활약으로 흡족함을 안겨주고 있다.

김 감독은 "윤영철에게 큰 기대를 하지는 않는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선수가 선발 로테이션을 잘 지키는 것만으로 잘하고 있는 것"이라



며 "너무 좋은 실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신인왕 후보로 꼽히는 윤영철이 선배 이의리의 뒤를 이을 수 있을지도 관심이 모은다.

2021년 KIA에 입단한 이의리는 시즌 막판 발목 부상을 당해 일찍 시즌을 접었지만, 19경기에서 4승 5패 평균자책점 3.61의 성적을 거두고 신인왕을 거머쥐었다. 타이거즈 선수의 신인왕 수상은 1985년 이순철 이후 36년 만의 일이었다.

개막 이후 10경기 페이스만 보면 윤영철이

이의리보다 낫다.

윤영철처럼 데뷔 첫 해부터 선발 한 자리를 꿰차 꾸준히 선발 로테이션을 소화한 이의리는 2021년 첫 10경기에서 2승 2패 평균자책점 4.50을 기록했다.

타이거즈 세 번째 신인왕을 노리는 윤영철은 문동주, 김서현(이상 한화 이글스), 송영진(SSG), 박명근(LG 트윈스), 김민석(롯데) 등과 신인왕 경쟁을 이어간다. 계속해서 성장세를 보여준다면 2년 전 이의리의 뒤를 이을 가능성은 한층 커진다.



## 새 진용 갖춘 클린스만호, 내일 페루 상대 첫 승 도전

클린스만호가 페루를 상대로 첫 승에 도전한다.

우르겐 클린스만(독일)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이 오는 16일 오후 8시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페루와 A매치 경기를 치른다.

지난 3월 한국 사령탑 데뷔 무대에서 콜롬비아(2-2 무), 우루과이(1-2 패)를 상대로 1무 1패를 기록했던 클린스만 감독은 부임 첫 승에 도전한다.

당시 클린스만 감독은 2022 카타르월드컵 16강 진출의 주역들을 주축으로 선수단을 꾸렸다.

그러나 이번에는 해외파와 K리그를 두루 살펴 자신이 추구하는 스타일에 어울릴만한 선수들을 선별했다. '진짜 클린스만호 1기'로 불린다.

손흥민(토트넘), 황희찬(울버햄튼), 이강인(마요르카), 이재성(마인츠) 등 유럽파를 비롯해 총 24명이 합류했다.

부상이나 개인 사정 등으로 합류하지 못하는 핵심 선수들이 있지만 내년 1월 카타르 아시안컵, 나아가 2026 북중미월드컵까지 클린스만 감독이 주시할 첫 번째 후보군인 셈이다.

가장 큰 관심을 모으는 주장 손흥민(토트넘)은 스포츠 탈장 수술을 받아 출전이 불투명하다. 대한축구협회에 따르면 손흥민은 지난날 29일 소속팀 토트넘의 마지막 리그 경기를 치르고, 영국에서 가벼운 탈장 수술을 받았다.

코칭스태프는 회복 정도를 살펴며 출전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페루전은 출전이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손흥민은 출전의지가 매우 강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지난 12일부터 부산 구덕운동장에서 진행된 소집 훈련에 정상적으로 참여해 회복에 집중했다.

황의조(서울), 조규성(전북), 오현규(셀틱)의 공격수 자리 경쟁도 불거졌다. 셋은 지난 3월 A매치 2연전에 이어 다시 한 번 클린스만 감독의 부름을 받았다.

오현규는 스코틀랜드 데뷔 시즌에 트레블(3개 대회)을 달성하며 귀중한 우승 경험을 쌓았고, K리그1(1부)에서 초반 주춤했던 황의조와 조규성은 소집 직전에 나란히 골맛을 봤다.

클린스만 감독은 "세 공격수 모두 충분히 득점할 수 있는 선수들이다. 충분한 출전 시간을 줄 것"이라고 예고했다.

황의조는 지난해 6월 이집트와 평가전 이후 1년 만에 A매치 골 사냥에 나선다. 조규성은 지난해 11월 카타르월드컵 가나와 조별리그 2차전에서 기록한 멀티골이 마지막이다.

오현규는 A매치 데뷔골을 노린다. 수비진은 공백이 불가피하다. 중앙 수비의 핵심 김민재(나폴리)와 김영권(울산)이 각각 기초군사훈련, 부상으로 명단에서 제외됐다.

박지성(포르티모네)의 존재감이 커졌다. 지난해 11월 부상으로 월드컵 직전에 낙마했던 그는 아쉬움을 뒤로 하고 다시 태극마크를 달았다.

앞서 1월 포르투갈 1부 포르티모네세로 이적하며 유럽 무대에 진출했다. 안정감 있는 수비가 장점인 그는 데뷔전을 시작으로 14경기에 모두 출전하며 소속팀의 1부 잔류에 힘을 보탤다.

한층 자신감을 얻은 박지성은 "솔직한 영건이었고, 민제는 대체할 선수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나도 지난 4년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 했기 때문에 잘 녹아들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나의 장점을 어필하면 경쟁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본다"고 내다봤다.

클린스만 감독은 당초 김주성(서울)과 권경원(강화 오사카)을 박지성의 중앙 수비 파트너로 낙점했지만 소집 직전에 권경원이 부상으로 빠졌다. 대신 정승현(울산)과 박규현(디나모 드레즈덴)이 합류했다.

박규현을 비롯해 흥현성(헨트), 안현범(제주) 등 새 얼굴들의 활약도 관심을 끈다. 클린스만 감독은 "선수들 본인의 의지와 열정을 보겠다"며 "선수들이 얼마나 카타르(아시안컵)에 가고 싶은지 증명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페루는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21위로 한국(27위)보다 높다. 역대 상대전적은 2전 1무 1패로 열세다.



전북 현대 단 페트레스쿠 신임 감독이 14일 경기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박지성 테크니컬 디렉터와 대화하며 미소 짓고 있다.

## 박지성 "페트레스쿠, 전북팬 원하는 공격축구 보여줄 것"

프로축구 K리그1 전북현대 박지성 디렉터가 단 페트레스쿠 신임 감독이 공격 축구를 보여줄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박 디렉터는 14일 오전 현대모터스튜디오 고양에서 열린 페트레스쿠 감독 선임 공식 기자회견에서 "페트레스쿠 감독은) 우리 진영에서 공을 돌리는 것 안 좋아한다. 빨리 상대 진영으로 올라가는 것을 좋아한다"며 "본인이 루마니아에서 보여준 축구를 여기서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디렉터는 루마니아리그에서 클루지를 수차례 리그 우승으로 이끈 페트레스쿠 감독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클루지가 루마니아에서 가진 위상도 전북과 비슷한 부분이 있다"며 "전북팬이 원하는 공격 축구를 전북에서도 보여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북이 보여줬던 공격 축구를 되살릴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 박 디렉터는 "상대 진영까지 빠르게 침투해 상대 진영에서 공을 간수하고 결정짓는 모습이 전북 축구와 맞겠다"고 생각했다"며 "전북의 기초를 잘 유지하면서 발전시킬 수 있겠다는 부분이 컸다"고 선임 배경을 설명했다.

박 디렉터는 페트레스쿠 감독의 선수 관리 능력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전술적 능력도 중요하지만 선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의사소통을 어떻게 하느냐를 갖춰야 좋은 감독인데 개인적으로 2가지 중 하나를 택하려면 후자를 선택한다"며 "전술도 중요하지만 수행하는 것은 선수들이다. 수행을 100%로 올리려면 선수들의 마음을 이끌어내야 한다. 이 부분에서 단 감독의 장점이 분명히 있다"고 설명했다.

솔직하고 직선적인 성격 역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박 디렉터는 "상당히 직선적이고 말이 나 행동을 정확하게 한다. 추가적인 설명 없이 본질에 파고드는 말이 이 시점에서 선수와 빠르게 친해질 수 있는 부분"이라며 "그 이면에 푸근한 마음도 있고 선수를 포용하는 능력도 있다. 지난 팀들과 헤어질 때도 선수들과 유대 관계가 끈끈했다. 한국에서도 선수들과 좋은 관계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



기념촬영하는 U-20 축구대표팀

국제축구연맹(FIFA) 아르헨티나 U-20 월드컵에서 4강 진출을 이룬 한국 축구대표팀이 1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열린 귀국 환영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원팀'으로 U-20 월드컵 4강...김은중호 '금의환향'

'골짜기 세대' 설움 딛고 2회 연속 U-20 월드컵 4강 진출

온갖 약재를 뚫고 '원팀'으로 2023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에서 4강 패거리를 이룬 김은중호가 금의환향했다.

김은중 감독이 이끈 U-20 축구대표팀이 1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귀국했다.

현지 적응을 위한 브라질 전지훈련을 위해 지난날 7일 출국했던 김은중호는 대회 마지막 날까지의 여정을 마치고 39일 만에 돌아왔다.

김은중호는 지난 12일 아르헨티나 라플라타 스타디움에서 치른 2023 U-20 월드컵 3·4위 결정전에서 이스라엘에 1-3으로 지면서 4위로 대회를 마쳤다.

입상에는 실패했지만,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둔 2019년 폴란드 대회(준우승)에 이어 2회 연속 4강 진출이란 성과를 냈다.

스타플레이어가 없는 '골짜기 세대'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조별리그 첫 경기부터 강호 프랑스를 꺾으며 이번을 예고했고, 예과도르와 16강, 나이지리아와의 8강전을 모두 승리하며 4강까지 진격했다.

준우승을 한 2019년 폴란드 대회에 이어 2회 연속 4강 진출이다.

사실 김은중호의 4강을 예상한 이는 거의 없었다.

대회를 앞두고 감독직을 맡은 김은중호는 인도네시아에서 지구 반대편 아르헨티나로 바뀌었고, '유럽파' 이현주(바이에른 뮌헨) 등 일부 주전 선수들이 부상으로 낙마했다.

또 조별리그 도중에는 스트라이커 박승호(인천)마저 발목 골절로 조기 귀국하는 등 전력 누수도 있었다.

하지만 김은중호는 '원팀'으로 고난을 이겨냈다.

소속팀에서 출전 시간이 적어 경기 감각이 부족했던 선수들을 하나로 뭉쳐 끈끈한 축구를 보여줬고, 세트피스를 활용한 '실리 축구'로 강호들을 연달아 잡아냈다.

새로운 보석도 발견했다. K리그1 데뷔도 하지 못했던 무명 이승원(강원)은 이번 대회에서 3골 4도움으로 4년 전 골든볼을 수상한 이강인(마요르카)의 기록을 넘어섰다.

이승원은 대회 최우수선수(MVP) 3위에 해당하는 브론즈볼도 받았다.

대한축구협회는 2회 연속 U-20 월드컵 4강 진출에 성공한 김은중호를 위한 환영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 김 감독과 주장 이승원을 비롯한 선수들은 인사말과 대회 소감 등을 전했다.

## 류현진, 라이브피칭 통해 실전 감각 끌어올린다

존 슈나이더 감독 "류현진, 이번주 라이브피칭 한다"

류현진(36·토론토 블루제이스)이 라이브 피칭을 소화해 다음달 메이저리그(MLB) 복귀에 박차를 가한다.

토론토 매치 '스포츠킷'은 존 슈나이더 토론토 감독이 14일(한국시간) 열린 볼티모어 오리올스와의 원정경기를 앞두고 류현진의 근황을 전했다"고 보도했다.

슈나이더 감독은 "류현진이 이번주 라이브

피칭을 한다"고 말했다.

류현진은 지난해 6월 팔꿈치 인대 수술을 받았다. 류현진은 토론토에 온 후 첫 시즌만 활약했을 뿐 2021년부터 내리막길을 걸었다. 지난해는 부상 여파로 6경기 출전에 그쳤다.

류현진은 복귀를 위한 볼펜 피칭을 소화했고, 식단 조절로 날렵해진 몸을 보여주

고 했다.

그는 현재 플로리다주 더니든의 팀 훈련장에서 몸을 만들고 있다.

류현진은 볼펜 피칭과 타자를 세워 놓고 던지는 라이브 피칭을 통해 구위를 끌어올리고 통증 여부를 체크할 계획이다. 통증이 없다면, 마이너리그에서 경기력을 테스트할 것으로 보인다.

류현진은 코칭스태프에게 합격점을 받아야 메이저리그 마운드에 복귀할 수 있다.